

Brent 씨 경력

브렌트씨 조부모께서 아일랜드로 부터 미국으로 이민했기 때문에 그는 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갖는 데는 희생이 따른다 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브렌트씨는 주어진 기회를 모두에게 열어 지속 시키고 이 경제가 힘든 시기에도 불문하고 우리 관할 구역 근면한 시민들을 돕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브렌트는 큰즈 잭슨 하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이트 롱 아일랜드의 메리 초등학교,로솔린 고등학교를 마쳤고, 콘네티컷주 하트포드의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보스톤 대학교 법학부에서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보스톤 로 스쿨에서 수료중 국제 법을 공부하는 다섯 학생 중의 한사람으로 뽑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으로 갔다.

브렌트씨는 입후보자를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여 유권자가 투표를 행사 할수 있게 유권자 등록을 도우며 일반 대중과 동등한 입장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2002년, 닷을羹 【?근무중 일본 해외 민주당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정치의 과정에 참여해서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의 투표를 도왔다. 2년의 의장 임기동안 회원수가 3 배이상 되었다.

2004년, 브렌트씨는 민주당 전국 위원회에 선출되어 50 주 전략의 강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최고 대표로 2008년엔, 브렌트는 대선거 민주당 에서 선출된 바락 오바마 씨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전국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2008년에 오바마 선거 운동부으로 부터 뉴욕에서 오바마를 지지하는 아이리쉬 재미 교포들을 합치게 해달라는 의례와함께 대선거까지 그일을 했습니다.

브렌트씨는 법인, 재정의 최고 변호사 입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뉴욕을 근거지로한 법률 회사 "White & Case" 토오쿄 사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들 회사의 재정과 업무거래, 그들 회사들의 구조화, 면허들 획득,셀수 없는 회사들의 진행을 돕는등 수많은 복잡한 업무를 맡아서 처리했다.

2002년엔, 그는 일본에서 온라인 상거래 처리,기업을 위한 아시아 합법 법인체로 부터 뽑은 기업내의 최고 변호사 한명으로 선정됐으? 2006년, 그는 일본 기업 변호사단 위원회 미국 상공 회의소의 의장이 되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브렌트는 무주택 어린이 들을 위한 학교 설립 위한 자선 기금 이벤트를 Make-A-Wish 단체와 Christina Noble Foundation 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인신 매매에 반대하여 힘있는 노력으로 일본 시민 자유 연방을 위해 통역으로 도왔습니다.

브렌트씨는 " Bloomberg LP "의 수석 법률 수락 고문 변호사 직을 맞고 "White & Case" 를 떠나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에서 브렌트씨는 DNS 임기를 끝내고 오바마 선거 운동을 도왔습니다